



원제 <언제나 선> Everyday Zen
 저자 샬럿 요코 벡 Charlotte Joko Beck
 출판사 하퍼샌프란시스코 HarperSan Francisco

원지영_열림원 편집부

Everyday Zen

나는 틱낫한 스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거나 존경한다는 말보다 '그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더 틱낫한스러운 어법일 것이다. 지난해에 《틱낫한의 평화로움》을 진행하면서, 나는 그의 수십 권에 달하는 원서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단어들 사이에서 찾아낸 그만의 키워드는 '나는 이미 여기에 도착해 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행복하다' 였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인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스레 불교와 명상, 선에 관계된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중에 《Everyday Zen》이 있었다. 하루하루 두더지 게임에서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거나 혹은 자질구레한 구체적 삶의 사건들 속에서 도대체 '선'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더구나 부제엔 '사랑과 일'이라고도 써어 있지 않은가. 어렵기 짝이 없는 이 화두를 한번 '선'이라는 버전으로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성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인 샬럿 요코 벡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선 센터의 여성 마스터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선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 책의 주연배우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흔하고도 무거운 고민들이기 때문이다. 선에 관한 가르침들은 단지 편안한 배경 음악처럼 흐를 뿐이다. 가끔씩 학생들이 나와 질문할 때도 있는데, 그런 장면에선 저자가 직접 카메오로 출연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요코 벡은 눈앞의 일에 온 정성과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선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자각해야만 한다. "청소는 정말 싫어. 대체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어? 난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마음

이 다른 곳으로 새기 시작하면 다시 지금의 일로 생각을 되돌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만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자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대개 우리는 '이 관계는 내게 기쁨을 주어야 해. 적어도 불편하게 해서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만일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오늘 아침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다고 치자. 한낮이 되어도 흥분과 동요가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보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과 동정, 동의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꼭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 문제를 끝장을 봐야 해." 그러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말다툼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물론 내게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저녁 식탁은 어디에 차려져 있는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동요만이 있을 뿐이다. 《언제나 선》은 느낌, 관계, 고통, 이상, 경계, 선택 등의 이름으로 각 회가 나누어진 '생활선에 관한 드라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코 벡은 선 마스터로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여성의 시각에서 사람들 내면의, 또한 외부의(사실 저자에 따르면 이런 구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선의 가르침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서양인의 선을 과연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선禪'은 언제나, 어디에서든, 선함과 선鮮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선이라는 동양적 가르침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두루 볼 줄 아는 눈, 이제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유진**



원제 Berthe Morisot - Le secret de la femme en noir
 저자 도미니크 보나 Dominique Bona
 출판사 그라세 출판사 Grasset

최혜진_에담 편집팀

Berthe Morisot Le secret de la femme en noir

몇 년 전 파리를 여행하면서 마르모탕 미술관을 찾았을 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강렬한 인상의 그림이 있었다. 단아하고 고결한 이미지, 우미한 매력과 추연함이 동시에 전해지는 강한 개성의 모델 베르트 모리소 Berthe Morisot. 1870년 에두아르 마네가 그린 <보라색 부케를 든 베르트 모리소>라는 인상적인 그림으로 알려진 19세기 여성화가이다.

언젠가 도미니크 보나가 저술한 로맹 가리 전기를 읽다가 그녀의 또 다른 전기 《베르트 모리소 Berthe Morisot》의 표지가 전하는 강렬한 미혹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적이 있다. 마네는 베르트를 모델로 하여 여러 점의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녀 스스로가 뛰어난 회화적 소양을 지닌 화가이기도 했다. 《로맹 가리 Romain Gary》 등으로 이미 걸출한 전기 작가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도미니크 보나는 작가 특유의 정확하고 섬세한 필치로 한 세기를 소리 없이 풍미한 한 여성화가의 진지하고 치열한 삶을 농밀히 반추해 나간다.

<보라색 부케를 든 베르트 모리소>는 하나의 신비이다. 여인의 신비이며, 삶의 신비다. 검은 옷을 입은 깊은 눈매의 이 여인은 1870년대 마네가 그린 베르트 모리소의 초상으로, 무슨 비밀이라도 감추고 있는 듯 도도한 표정이 보는 이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 그 이상이다.

인상과 화가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베르트 모리소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뛰어난 창작력의 소유자인 동시에 마네, 드가, 모네, 르누아르 등이 주도하던 당시 화단에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였으며, 마네의 동생인 외젠과 결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렬하지만 음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인 신비의 여인 베르트 모리소...

그녀의 작품은 넘치는 섬세함과 미묘한 색채, 빠르고 자유로운 붓놀림으로 신선함을 주며, 어떤 비평가는 그녀를 '유일한 인상주의 화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리소의 지극히 제한적인 주제 선택은 화가의 예술적인 관심뿐 아니라 성별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반영한다. 모리소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접하는 우아한 여인의 사적인 이미지와 가족의 삶을 주된 화제畫題로 삼았다.

인상주의 화가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시에는 아마추어로 취급되었고, 훗날 그녀의 사망 진단서에는 '무직'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마네, 모네, 시슬리, 피사로, 르누아르 등 굴지의 화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당시 프랑스 문단을 주도한 스테판 말라르메, 폴 발레리, 위스망스 등과도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했음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베르트 모리소와 문인들이 주고받은 서간문이 프랑스에서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도미니크 보나는 이 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다 간 한 여성 화가의 섬세한 초상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베일의 화가, 그 가려진 인간의 얼굴을 발굴해 내는 작가의 정교한 손길이 새삼 감탄을 자아낸다.

'베르트 모리소의 남다른 점은 자신의 그림을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린 데 있다'는 폴 발레리의 메시지도 인상적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죽어갈 것'이라는 베르트 모리소의 말처럼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

German

'분단'의 동병상련, 경계선 위의 아이들



원제 경계선 위의 아이들 Zonenkinder
 저자 야나 헨젤 Jana Hensel
 출판사 로볼트 Rowohlt

한경희_생각의나무 편집부

Zonenkinder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넘었다.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독일의 통일문제에 늘 관심을 갖게 된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으며 통일을 이룬 뒤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통일로 인해 독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시하게 된다.

그러던 중 이 책이 눈에 띄었다. 이 책은 현재 독일에서 찬탄과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동독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독에서 살고 있는 야나 헨젤이라는 한 평범한 여자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이야기이다.

야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저녁, 엄마 손을 붙잡고 수많은 인파에 휩쓸리며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서독을 향해 앞으로 걸어갔던 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까지 친숙했던 세계를 모두 잃었다. 통일과 함께 유년시절도 끝났으며, 고향도 잃었고 친구들도 잃었고, 이제까지 배운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으며 부모님과의 화목한 관계도 깨졌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은 완전히 부정되었고 동독의 것이라면 모두 없어야 했다. 야나는 동독을 깨끗이 잊고 완벽하게 서독의 가치관과 체제에 적응했으며 새로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동독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자, 낙오자가 되었으며 여전히 동독인으로 살고 있다. 그녀의 부모는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걱정을 끼치거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는, 보호해 주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야나와 부모님 사이에는 세대 차이 외에 '너는 서독인, 나는 동독인' 이

라는 또 다른 이질감이 존재한다.

독일이 통일되던 해 야나는 열세 살의 소녀였는데 사춘기에 통일을 겪은 셈이다. 물론 한 개인의 체험이 한 세대 전체의 체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독일에서 1970년대에 태어나 사춘기에 통일을 겪은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야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이제까지 부정해 왔던 동독을 자기 안에 끌어안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야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동독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서독에서 자란 것도 아니다. 우리는 경계선 위에 있는 아이들이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해야 하며 아직 그 어떤 목표도 달성되지 않은 경계선 위에 있는 아이들이다."

평범한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래서인지 더 현실감이 느껴진다.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고 통일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격심한 변화를 겪은 세대의 모순되는 삶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은 곧 앞으로 우리들이 겪게 될 일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극단을 거친 뒤에 중도를 찾게 된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것을 모두 부정하고 말살하여 서독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어느 한쪽의 말살이나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단점을 버리되 장점을 살려서 서로 맞추어가며 남한도 북한도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경희**

정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제 《지구촌 생활》地球生活記 《지구촌 음식》食べもの記

《지구촌 사람》地球人記

저자 코마츠 요시오, 모리에다 타카시

출판사 福音館書店

박은덕 한림출판사 편집부

地球生活記, 食べもの記, 地球人記

다양한 풍경과 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도감이 도착했다. 나는 어릴 적 열악한 학교도서관에서 빌려 봤던 어느 전집 시리즈의, 세계의 문화를 아우르던 책들이 떠올랐다. 몇 번이나 써먹은 듯한 희뿌연 사진에 화려한 금장의 장정이 무색하게 이미 너털너털해질 대로 너털해진 빛 바랜 책들을 나는 아주 즐겁게 본 기억이 있다. 그건 아마도 책의 질이 어떻다는 것을 넘어서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마음껏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늘 허전하다.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기는 하나 인터넷의 자료들은 인스턴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간편하고 손쉽게 찾을 수는 있으나 깊은 맛이 없다고 할까. 진심으로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진지하게 탐구해 온 자취들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늘 내게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차에 도감을 보는 순간 '와, 이거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도감은 전3권으로 《지구촌 생활》, 《지구촌 음식》, 《지구촌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촌 생활》에서는 세계의 여러 집들을 중심으로 한 권의 책을 묶고 있다. 자연과 기후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여 조화로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진실로 아름답다.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모습의 집들이 지어질 수 있었는가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지구촌 생활》에 이어 2년 후에 일본에서 출간된 《지구촌 음식》과 《지구촌 사람》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먹거리와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지구촌 음식》

에서는 풍요한 먹거리의 생산과정과 다양각색의 요리방법을 통하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지구촌 사람》 역시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삶을 보여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가히 숭고하게까지 느껴졌다.

도감의 형식과 주제별 편집 또한 이 책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 사진작가가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 너무도 다른 사진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도감의 사진작가는 보다 다양한 문화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중요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많은 집과 음식과 사람을 모두 찍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나누어 담을 것인가가 큰 문제였을 것이다. 큰 덩어리의 테마 속에 각 주제를 나누어 정리를 한 덕분에 비슷한 유의 사진이 반복되는 단조로움을 피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끔씩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처럼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삶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우리가 사는 일상도 이렇게 정답과 소중히 여겨진다. 하루빨리 이 책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